

CEO 동정

삼청 로타리클럽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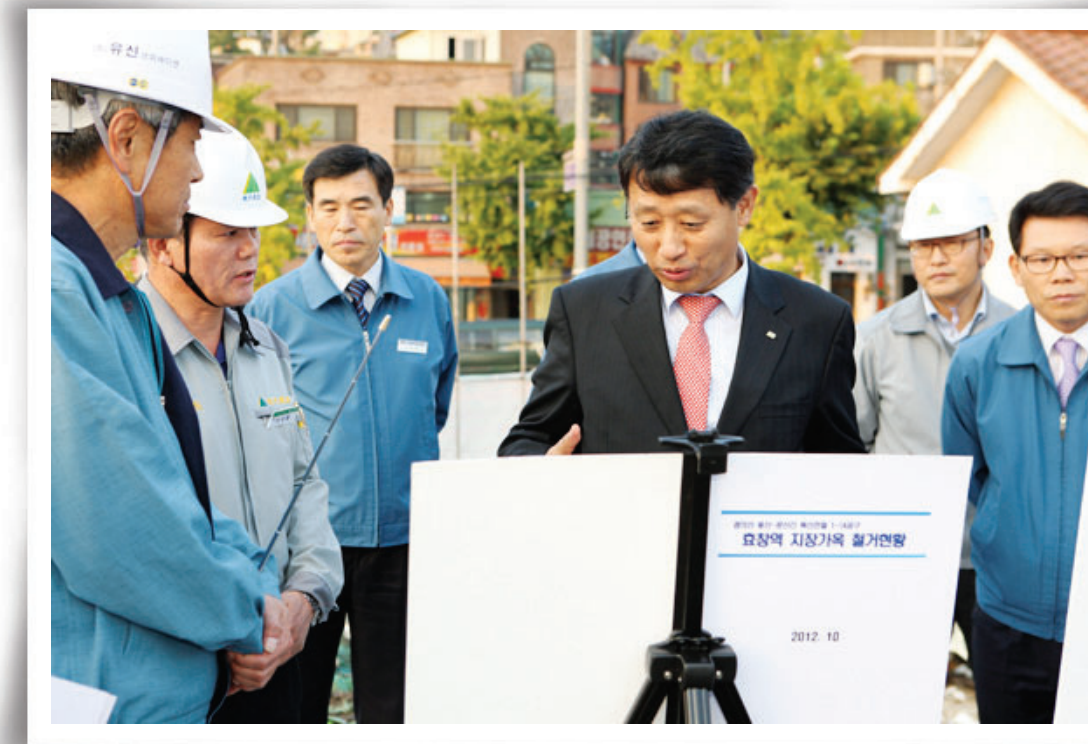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7일 봉사활동단체인 삼청 로타리클럽이 주관한 조찬에 초청받아 '철도산업의 현재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영남본부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8일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등 영남본부 관내 건설현장을 시찰하며 적기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본부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9일 경의선 등 수도권본부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해 시공중 애로사항 및 품질 개선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고 안전한 철도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했다.

한국철도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참석

- 투자 대비 수송분담률 증가 및 철도용품 국산화 필요 강조 -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한국철도학회(학회장 이용상)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국토부, 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후원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광재 이사장은 춘계에 이어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축사를 맡으며, 철도발전을 위한 학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투자 대비 수송분담률 증가와 철도용품 국산화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철도가 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단은 녹색철도연구원의 '경춘선 이용증대 방안' 등 총 3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대회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Global Tech, Global Rail'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27편의 국제논문이 발표돼 국제학술대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기획조정실 이성도 기자)



2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KRCA) 수상

- 변화와 혁신 통해 국민편의 증진 및 녹색성장 기여 -

공단은 지난 25일 한국표준협회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201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생태계를 고려한 녹색철도망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KRCA-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수상했다.



인시설 개선 등으로 최근 1년간 총 1조 275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품질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개소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발생 건수가 48% 감소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추었으며, 철도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발, 금융비용 절감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

구노력으로 공단 출범 이래 최초로 부채이자 415억원을 순수상환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최하위에 머물렀던 청렴도를 One-Strike Out, 부패제도 개선 등을 전개해 중상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고객특성과 유형에 맞춘 VOC 개선 활동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했다.

공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KRCA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을 수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존중하는 우리나라 대표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국 90분대 철도망 연결을 목표로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철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해 최근 1년 사이 11개 사업을 집중 개통함으로써 철도투자효과를 높였다. 또 설계경제성 검토(VE), 시공방법 개선, 6시그마 창의혁신 활동 등 수송수요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규모의 최적화와 과

제4회 철도문학상 시상식 개최

- 단편소설 '역(驛)에서' 최우수상 수상 -

공단은 한국철도문화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 30일 공단 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철도문학상 시상식'을 갖고 단편소설 등 5개 분야 당선자 20명에 대한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인 국토부장관상은 단편소설 부문 '역(驛)에서의 차장은씨에게 돌아갔고 전지원씨의 '그 플랫폼엔 당신이 있었다'와 정성수씨의 '기차속의 두와불(臥佛)'이 우수상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상(수필부문)과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상(시부문)을 수상했다. 또 차관영의 '20세기 초 동아시아 철도 비교연구'와 이기욱 소장의 '도라산역이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김유진 양의 단편소설 '기차나들이'는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20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철도문학상은 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공동후원으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작품 공모를 진행했고, 한국작가회의 문동만 시인,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소설가 등이 참여한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1, 2차 심사를 통해 지난 10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철도문학상은 철도를 소재로 문학창작 활동을 촉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5개 부문(동시,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별로 다양한 작품을 공모해 우수작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철도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우수대 이용상 교수(한국철도학회 회장)의 '20세기 초 동아시아 철도 비교연구'와 이기욱 소장(석림건축연구소)의 '문화재 철도시설물의 활용현황 분석 및 대전철도보급 창고 활용방안 연구'에 관한 주제발표와 철도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관계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는 "그간 소홀했던 '철도문화유산 활용 및 철도기차 증대방안'에 대해 새로운 철도문화진흥 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주의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제4회 철도문학상 시상식 및 철도문화유산과 역사 정책세미나



2012년 VE 경진대회 개최

- 전국 발주청 및 민간건설사 참여 예정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오는 26일 건설회관에서 전국 발주청 및 민간건설사에서 수행한 토목, 건축, 기타분야의 VE(Value Engineering) 프로젝트 중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 VE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해 실시되며,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던 VE 경진대회를 올해부터는 민간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참가신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마감했으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서류심사 및 발표회를 갖고, 11월 26일 서울 노원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단은 금년 3분기말 현재까지 부산~울산 서해선 4·5공구, 원주~강릉 건설사업 등 설계VE를 시행해 약 2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번 대회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VE 등 4건을 출품할 예정이다.

2012 VE 경진대회
한국철도 및 가치창출을 위한 Value Engineering

시상 및 발표회
일시: 2012. 11. 26(화) AM10:00
장소: 건설회관 대회의실(2층)
주최: 국토해양부
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2012. 10. 17(수) ~ 10. 26(금)
심사(서류심사 및 발표회): 2012. 11. 1(화) ~ 11. 16(금)
경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 설계경제성평가팀
창간: 건설분야 VEM(가치창출)팀으로서 각 발주청, 민간

주최: 국토해양부 | 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 문의: 042)607-4745